

## ‘한인노인 여성 자살예방’ 본격 시작

한인 노인 여성들의 자살방지를 위한 캠페인이 뉴욕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 가동된다.

해밀턴 매디슨 하우스와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 뉴욕아시안 아메리칸 정신건강연맹 등 3개 단체는 24일 플러싱 한미노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아시안 여성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한국어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한미정신건강협회(KABHA·회장 신진아)와 연대해 오는 10월28일(오전 10시30분~정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제1차 한국어 노인여성 자살방지 세미나’를 시작으로 20여개의 교육 세미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 1차 세미나는 뉴욕 한인 노인 여성 자살 현황, 자살 징후, 가족들의 대응방법, 자살방지 핫라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뉴욕 한인 언론 및 방송을 통해 ‘노인 여성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아시안 노인 여성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4월 뉴욕주 보건국으로부터 45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1년간 시범 운영되는 ‘아시안 여성 노인 자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15만달러로 해밀턴 매디슨 하우스가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총괄하며 한미정신건강협회가 한국어 자살방지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터 이 해밀턴 매디슨 하우스 부대표는 “뉴욕주 전체로는 50여개 이상의 자살교육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세미나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자살은 미 인구 사망원인 11위로 기록됐으며 자살한 인구를 인종별로 분류한 결과 아시안이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75세이상 노인 여성의 자살률을 인종별로 봤을 때 백인은 인구 10만명당 4.18명, 흑인은 1.18명, 아시안은 7.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희 기자>

